

SKT, 3분기 영업이익 4980억...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성장 견인

순이익 3082억 25.5% 늘어나
데이터센터 매출 전년비 32.5%
클라우드 38.7%↑... 성장 돋보여
“AI 피라미드 전략으로 글로벌 도약”



SK텔레콤 서울 을지로 'T타워'.

SK텔레콤 3분기 영업이익이 7% 증가했다. 통신 시장 성장세가 꾸준한데다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사업 등이 고른 성장을 나타낸 덕분이다. SKT의 5G 가입자는 9월 기준 1515만명으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지속했다. SK브로드밴드는 952만명의 유료방송 가입자 및 687만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확보했다.

8일 SKT에 따르면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은 4조40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96% 증가한 498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익은 3082억원으로 25.5% 늘었다. 다만,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으나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망치는 매출액 4조4170억원, 영업이익 4880억원이었다.

SK브로드밴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성장한 1조692억원, 영업이익은 4.4% 증가한 832억원을 기록했다. 이동통신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한 2조6540억원을 기록했다. IPTV 가입자는 3분기 순증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952만명을 달성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순증 점유율 2위를 차지하며 687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및 클라우드 분야에서의 성장이 돋보였다. IDC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5%, 클라우드 매출은 38.7% 증가했다. IDC는 신규 데이터센터의 가동률 상승과 클라우드 수주 증가가 주요했다. 클라우드드는 반복 발생 매출이 6개 분기 연속 90%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

익 모델로 자리잡았다. 또 KT와 LG유플러스는 3·4분기 인건비 등 비용을 크게 반영한 반면, SKT의 마케팅비용, 감가상각비 등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전분기 일회성 알뜰폰(MVNO) 경쟁 대응 요인을 회복하는 등 비용 안정화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SKT는 향후 인공지능(AI) 분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실적 성장세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SKT는 올 9월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AI얼라이언스와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업에 기반한 'AI 피라미드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SKT는 또 멀티 초거대언어모델(LLM) 전략하에 자체 개발한 AI 기술 브랜드 '에이닷엑스'의 고도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SKT는 이사회를 통해 올 3분기 배당금을 주당 830원으로 확정했으며 3000억원의 자사주 매입 작업 완료 후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소각할 예정이다.

김진원 S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AI 피라미드 전략으로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는 SKT의 성장이 기업과 주주까지 극대화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포스코홀딩스, 유전염수 리튬 확보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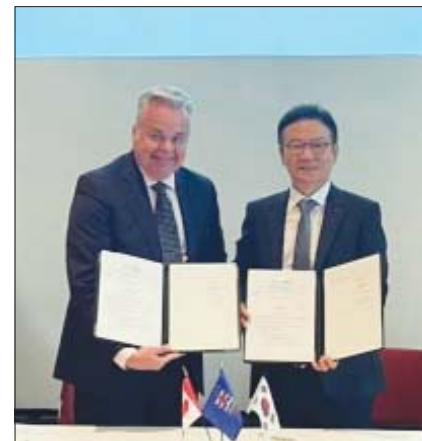
캐나다 앨버타주 투자청과 업무협약

포스코홀딩스가 캐나다 앨버타주 투자청(IAC)과 협력해 유전염수 리튬 확보에 나섰다.

포스코홀딩스와 IAC는 8일 주한 캐나다대사관에서 포스코홀딩스 이경섭 이차전지소재사업팀장(전무)과 릭 크리스티안세 IAC CEO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앨버타주 내 유전염수 리튬 자원 개발에 협력할 파트너사를 모색하고, 리튬 개발이 용이한 광구를 찾아 투자를 검토하는 한편, 최적의 리튬 추출 상용화공정을 실증하는 등 유전염수 리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IAC는 포스코홀딩스의 앨버타주 내 투자 과정에서 행정 지원을 하고, 유망 사업자와의 가교역할을 하며 자원 개발 관련 정보와 세계 혜택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탠다.

앨버타주는 캐나다의 석유와 셰일가스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수준의 유전염수 리튬 매장량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유전염수는 리튬 함유량이 기존 염수자원 대비 다소 낮은 편이나,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대규모 매장량이 보고되고 있어 새로운 리튬 자원으로 부상 중이다.



포스코홀딩스와 IAC는 8일 주한 캐나다대사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릭 크리스티안세 IAC CEO와 이경섭 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소재사업팀장(전무)가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포스코홀딩스

특히 다수의 기업들이 폐유전에 매장된 유전염수에서 직접리튬추출법(이하 DLE)을 활용해 리튬을 생산하는 사업을 검토하는 등 글로벌 리튬업체들을 중심으로 탐사, 개발 및 상업화가 추진 중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IAC와의 협약을 통해 기존 염수, 광석리튬 외에도 점토, 유전염수 등 비전통 리튬자원으로 원료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다. 또 북미 리튬 생산거점을 확보해 미국의 IRA대응을 포함, 북미에서 리튬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비철금속업계,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활’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 확보 과제
제련소, ESG경영 중심 친환경 구축
고려아연, 100% 그린아연 생산 목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비철금속업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련소 전력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공급불안정을 해소하려면 에너지 저장 장치(ESS) 시스템이 확보돼야 한다는 과제가 따른다.

8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제련기업도 친환경 시스템 구축에 매진하고 있는 중이다. 제련소는 제조과정상 환경과파괴 불가피해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으나 이를 탈피하고자 ESG경영 중심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추는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비철금속 제련은 가공비의 40% 이상을 전력 요금이 차지할 만큼 전력 소비가 많은 전기분해 공정을 거쳐야 한다.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공정 효율을 향상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저렴한 전력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이에 고려아연은 호주에 있는 자회사 SMC를 통해 호주의 풍력과 태양광을 기반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전 사업장의 에너지원을 수소기반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한 '100% 그린 아연' 생산을 목표로 한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와 함께 오미산

풍력발전사업에 1600억원을 투입해 60.2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했다. 또 제련소 내 지붕에 태양광 패널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 태양 에너지를 통한 발전도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다. 영풍은 정부의 정책보다 10년 정도 빠른 YP넷제로 2040을 목표로 2040년에 제련소 전력을 모두 신재생에너지화하는 것이 목표다.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 적이나 태양광과 풍력 등 자연에 의지하다 보니 생산량의 변화가 심하고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SS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아연은 지난 2018년에 150MWh(메가와트시)를 저장할 수 있는 ESS를 온산 제련소 인근에 마련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에 33MWh를 저장할 수 있는 융합형 ESS를 구축했다. 영풍의 융합형 ESS는 피크 제어-에너지 안정화-주파수 조정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카카오게임즈, 3분기 매출액 전년비 14%↓

비게임 부문, 경기침체 영향 받아

카카오게임즈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감소했다. 야심차게 선보인 '아레스: 라이즈오브가디언즈'의 성과 및 비용 효율화에도 불구하고 비게임 부문이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실적 감소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카카오게임즈는 신작 게임 준비와 라이브게임 서비스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게임즈는 3분기 매출액이 2647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 감소,

전년 동기 대비 14%씩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226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5% 줄었고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모바일게임은 전 분기 대비 7% 증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183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PC온라인게임은 전 분기 대비 3% 감소,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11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골프·스포츠 레저 통신 사업 등을 포함한 기타(비게임 부문) 매출은 전 분기 대비 21% 감소,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694억원을 기록했다. /최빛나 기자

LX세미콘, 신임 CEO에 이윤태 사장 내정

기업경영 경험 등 역량·전문성 갖춰

LX세미콘이 삼성반도체 출신 전문가를 새로운 수장으로 맞이한다.

LX세미콘은 신임 CEO에 이윤태 사장(사진)을 내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신임 사장은 2020년까지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 과감한 투자와 체질 개선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이끈 경영자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개발실장과 삼성디스플레이 LCD



개발 실장 등을 역임하며 반도체와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LX세미콘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대비하고, 선제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 풍부한 기업경영 경험,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사업에서 뛰어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업가를 신임 CEO로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 juk@

위메이드, 3분기 영업이익 454억 흑자전환

'미르의 전설 2, 3' 등 주력

위메이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연결 재무제표 기준 3분기 매출액은 약 2355억원, 영업이익 약 454억원, 당기순이익 약 37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3분기는 '미르의 전설 2, 3' 중국 라이선스 계약과 '나이트 크로우'의 안정적인 매출에 힘입어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총 5000억원에 달하는 '미르의 전설 2, 3' 중국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게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어 '나이트 크로우' 등 게임 매출은 13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위메이드의 해외 매출은 116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96%, 전년 동기비 201% 증가했다. 국내 매출은 119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 감소, 전년 동기비 71% 증가했다.

/최빛나 기자 vitna@